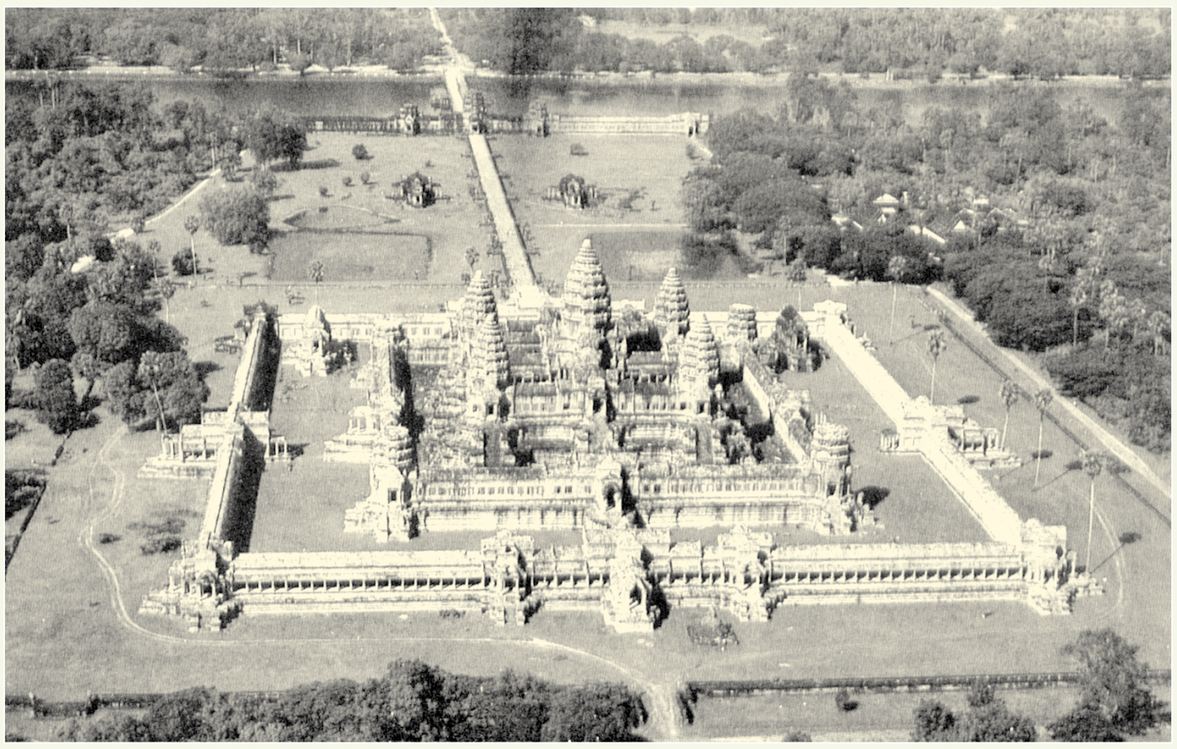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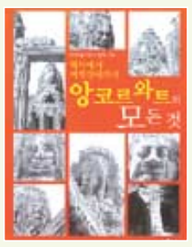


앙코르와트 전경. 왕코르와트 항공사진과 아래 만다라를 비교해 보면 그 구도가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 앙코르 앙코르



앙코르 와트의 모든 것
이우상 지음
푸른 역사 | 1만9500원

소설가 이우상씨 앙코르와트 구석구석 누비며 장엄한 역사와 유적 담아내

"왕궁의 중앙에는 황금 탑 바욘이 우뚝 섰고 주변은 12개가 넘는 작은 탑들과 수백 개의 돌로 만든 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두 마리의 황금 사자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황금 다리가 동쪽으로 놓여 있고, 다른 쪽에는 여덟 개의 황금 부처가 돌로 된 방을 따라 늘어서 있다. 왕궁 위에는 또 다른 황금 탑이 있으며 이 탑들을 보고 외국 상인들이 이르기를 참으로 부유하고 장엄한 앙코르 제국이라고 감탄하였다" –주달관 <진랍풍토기> 중에서

소설가인 이우상(대진대 겸임교수 · 본지 논설위원)씨가 5년전부터 수차례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뒤 역사서와 여행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앙코르 와트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앙코르 와트의 모든 것>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기록은 왜 많은 사람들이 '앙코르' '앙코르'를 외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책에는 저자가 앙코르를 여행하며 직접 찍은 유적지의 사진들을 곳곳에 배치하였고, 성학(진선여중 교사) 화백의 그림 16장을 화보 형식으로 맨 앞부분에 꾸며놓았다. 저자의 사진은 유적지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와 사진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성학 화백의 그림은 독자들에게 사진과는 또 다른 느낌의 앙코르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보통 역사서와는 다른 좀 더 화려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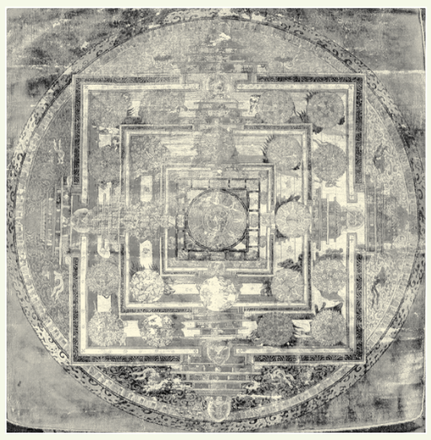
또한 유적지에 관한 정보나 혹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꼭지가 끝나는 부분에 박스로 처리했고, 이것과는 별도로 그 유적지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이 어딘지,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따로 표시해놓아 독자들이 역사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본문의 오른쪽에는 캄보디아의 역사와 앙코르 왕국의 역사가, 왼쪽에는 앙코르 구석구석을 누빈 저자의 여행담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앙코르의 역사와 앙코르 여행에 대한 지식을 함께 얻을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앙코르 가는 길을 시작으로 앙코르 중심부와 관세음보살의 미소가 보이는 바욘을 순례한다. 또 코끼리 부대 열병식을 볼 수 있는 코끼리 테라스와 영광과 치욕을 한 몸에 안고 앉아 있는 문둥이 왕 테라스, 킬링필드 사원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어 동부 앙코르로 들어가 따 쁘롬에서 벵골 보리수의 반란을 목격하고, 3000 궁녀와 함께 목욕을 한 쓰라 쓰랑, 머리를 칭칭 동여맨 탑을 볼 수 있는 반띠아이 끄데이를 둘러본다.

북부 앙코르에서는 신성한 검을 갖고 있는 쁘리아 칸, 수반 위의 연꽃이 아름다운 니악 뽀안, 게으른 순례자를 위한 사원 따 솜을 거쳐 앙코르 남서부 지역에서 인공 호수와 섬 그리고 그 속의 사원인 서쪽 호수와 서 메본, 소멸 혹은 풍화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프놈 끄롬, 앙코르 제국 그 에너지의 근원이었던 똔레삽 호수까지 방문한다.



룰루오스 지역에서는 고색창연함과 은빛 눈의 고승 그리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롤레이, 북동부 앙코르에서는 천 년 동안 목욕하고 있는 비슈누를 볼수 있는 끄발 스피언, 공룡 발자국이 선명한 프놈 꿀렌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듯 하다.

이밖에도 웬지 허전한 씨엠리업 국제공항, 시아누크 전 국왕과 시하모니 국왕, 캄보디아의 역사, 캄보디아 알기 통계 요약, 앙코르 이해를 위한 용어 모음, 일정별 앙코르 스케줄 짜기등 앙코르 이야기가 담겨있다.

앙코르에 내리쬐는 강한 태양빛과 크메르 루주를 상징하는 붉은빛이 담긴 이 책을 읽고 앙코르에 대해, 오늘날의 캄보디아에 대해 이해하고 그곳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선조들의 지혜 엿볼 수 있는 우리 전통가옥

이지누의 집 이야기 삼인출판사, 이지누 지음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잠잘 곳이 있어야 한다. 예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3가지의 기초수요 중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으나, 인간의 은신처인 주(住)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녔던 집의 의미와 '사람없는 집'으로 불리우는 현대적 집과의 차이를 저자의 풋풋한 추억들로 맛깔나게 설명하고 있다. 멀게는 단군할아버지부터 가깝게는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집에 대한 모든 생각의 근원은 거주자, 즉 인간에 있었던 반면,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지금의 집은 자본주의의 특성상 잠을 자기위한 공간이 아닌, 경제적 재화 혹은 상품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의 질이 높아질수록 주거공간을 '인간척도(human scale)'와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점점 인간미는 없어져 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린시절의 집을 되돌아보니 단지 추억이라는 말로 던져두기에는 아쉽다는 저자의 말처럼, 콘크리트 벽돌로 꽉 막힌 집들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반성의 기회를 선사한다. (cohan1979, book.naver.com/bookdb)

가부장 권위가 사라질때 아버지들의 진짜 속마음은?

아버지를 위한 변명 출판사 리더스북, 김병후 지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중에 농경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는 점차 사라져 가고,이른바 핵 가족 화 되어 가는 과정속에 부모의 설 자리가 떠 밀려가는 경향이 짙어 졌다.

그런 현실에 업친데 덥친 격으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넘는 세대가 되면 건강의 적신호와 함께 직장에서의 명퇴등으로 고난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아버지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럴 경우에 심하면 가족들에게까지 이해받지 못하는 보통의 아버지들이 슬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상담 창구등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좋은 아버지들은 여러모로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중년 아버지들을 위한 힘찬 조언을 곁들인 자기 반성적 성격의 심리치료 상담사례서라고 할수있다.

책속에는 사춘기 자녀들의 이유없는 반항과 끝없는 도전을 수시로 받고 있는 아버지들의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과 자녀들의 반항에 직면한 아버지들의 태도를 분석 해보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진짜 속마음을 심리학적으로 세심하게 캐내어 밝혀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mhy311,kyobobook.co.kr)

책속의 밑줄긋기

○…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불과 몇 분이나 몇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기분을 돋우거나 자기 자신을 잊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웃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단 일분만이라도 불편함을 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온갖 종류의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다. 반면에 불행을 잊지 못해 이것에 계속 집착한다면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들이 모두 봉쇄되고 만다.

따뜻한 인정미가 그리 많지 않았던 니체조차도 불편함의 원인을 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니체가 말했듯이 "행복한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다." 역사를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심란해지기 쉽다. 과거가 현재를 대신하고 미래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결코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 잊는 자는 치료된다. –<철학상담소>355~358쪽에서, 북로드, 루 매리노프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작
천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묵체로 세상을 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캐단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의 시송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청루학.kr/명상.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잠시 스치는 인연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특히나 슬프거나 어렵고 힘이 들 때 '누군가'라는 존재는 큰 힘이 되어준다.
그 누군가가 도반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 주고,
몸으로 막아 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120P / 신국판 / 값 6,000원 / 옥천 대성사
저자 혜철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1995 한국불교태고종 성원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00 옥천대성사 주지 취임
2001 옥천군 바르게 살기 종교분과위원장
2003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남부분원장
2004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장 취임
2006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2006 옥천군 문화원 총무분과 이사
선남선녀 불자들의 특별 만남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옥천읍 대성사 043)732-5560